

『멋진 신세계』에서의 젠더 트러블

류다영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Gender Trouble in Brave New World

Da-Young Ryu

Gobal Languages Liberal Arts School,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통해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미래 사회에서 젠더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평등과 균등을 표방하는 월드 스테이트라는 신세계에서 젠더 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 보면서 진정한 젠더 평등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표면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존재하는 원주민 보호 구역에서는 젠더 불평등적인 요소가 많았으며, 과학이 발전된 월드 스테이트는 젠더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월드 스테이트 사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의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국가의 의도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여성이 성적 상품으로 전락하는 등의 젠더 불평등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젠더 평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gender trouble in the future society from Huxley's Brave New World, in which science is highly developed. In addition, I examined how gender equality was achieved in the World State in which equality and identity were emphasized, and considered the precise meaning of gender equality. Superficially, there are many gender inequality factors in the Reservation, and gender equality is achieved in the World State. However, if we look closely at the World State, we realize that they deprive individual rights under the name of social stability. Therefore, we should reconsider what real gender equality is, and we need to examine what is needed to achieve gender equality.

Keywords : Aldous Huxley, Brave New World, Gender Equality, Gender Inequality, Gender Trouble

1. 서론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정치적, 사회적, 성적인 차별과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세계를 표방한다. 이러한 유토피아를 꿈꾸며 그들은 현실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이와 같은 유토피아를 그의 소설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한 작가이다. 그의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안에서는 전쟁이 존재하지 않고, 정치적 이념에 따른 갈등도 없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은 외적으로 늙지 않고 죽기 전까지도 젊고 아름다움을 간직한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며, 사는 동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유토피아적 세상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매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과학기술은 자본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며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이러한 자본이 생산해 내는 과학기술은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자본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 사람들의 의도에

본 논문은 중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과제관리번호: 2016-076).

*Corresponding Author : Da-Young Ryu (Jungwon Univ.)

Tel: +82-43-830-8651 email: modestar99@jwu.ac.kr

Received April 30, 2018

Revised May 29, 2018

Accepted July 6, 2018

Published July 31, 2018

따라 사회가 구성되어 갈 수 있는 경향이 다분히 지배적이다. 또한 국가의 정책은 모든 개인의 삶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젠더 불평등(또는 평등)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젠더 연구에서 국가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1]. 따라서 자본을 기반으로 발달된 과학기술이 적용되는 ‘멋진 신세계’는 젠더적 측면에서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며, 자본은 젠더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에서 자본이 어떻게 젠더를 다루고 있으며, 젠더 평등을 위해 자본이 어떻게 변화해 가야하는지에 대한 대안도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발전된 사회에서는 젠더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젠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멋진 신세계’에서 혁슬리는 두 가지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대조적인 이 두 가지 세계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산업사회인 월드 스테이트(the World State)라는 신세계와 미개한 세계로도 비춰지는 전통적 삶의 방식과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뉴멕시코 지역의 원주민 보호구역(the Reservation)이다. 작품의 내용과는 다르게 반어법적인 표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멋진 신세계’는 사실 악몽과도 같은 미래세계인 월드 스테이트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현대 사회의 모순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상력을 통해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혁슬리는 『멋진 신세계』의 서문에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정신을 소유하지는 않았으나 미친 사람들은 아니며, 사회의 안정을 위해 과학을 도구로 사용하여 혁신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2]. 즉, 과학기술을 인간 삶의 변화를 일으킬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인간 개체에게는 혁신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설 속에서 이러한 과학기술이 젠더의 평등이라는 주제의 측면에서는 어떠한 혁신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현대사회의 젠더 문제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젠더의 개념

‘젠더(gender)’와 ‘섹스(sex)’는 우리말로 모두 ‘성(性)’이라는 단어로 표기되고 있지만 실질적 사용함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젠더’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생물학적 성’과 구별하여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으로 정의하는 것이다[1]. 이러한 ‘젠더’ 개념의 발전은 1960~1970년대 서구 페미니즘 운동의 성과이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젠더는 사회나 문화를 함축하는 사회학적 의미의 성을 뜻하고, 섹스는 생물학적인 의미의 성을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젠더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구별되는 남녀의 정체성, 즉 사회문화적으로 길들여진 성이다. 대부분의 사회는 남성과 여성에 부합되는 젠더의 특질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을 그러한 방향으로 사회화시킨다. 페미니즘에서는 이런 사실을 비판하면서 생물학적 성(sex)이 사회적 성인 젠더와 무관하다고 말한다. 즉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남성중심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 의해 여성들에게 부과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섹스와 젠더를 다른 개념으로 분리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세해지는 가운데, 후기 구조주의 페미니스트이며 퀴어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이러한 기존의 섹스/젠더의 이분법을 허물면서 기존 페미니즘 정치학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버틀러는 섹스와 젠더의 의미에 대하여 혁신적인 개념화 작업을 시도하였는데, 정치적 목적성 또는 구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할 때 그 주체가 반드시 남녀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또한 섹스 혹은 젠더라고 명명하는 것들이 통일된 방식으로 언제나 똑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을 품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버틀러는 섹스와 젠더는 같은 문화적 구성물이며, 결국 하나라는 주장을 한다[3]. 이에 여성성이나 남성성과 같은 젠더적 특성은 일종의 환상일 뿐이며, 섹스와 젠더는 모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젠더는 고정된 개념의 명사로써가 아니라 행위로써의 동사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젠더링’(gendering) 되어가는 과정에 속한다고 말한다[3].

오랜 기간을 통해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여성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며,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해왔다. 그 결과 여성 인권에 대한 담론이 증가하고, 일부 국가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정치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며 사회 진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남성에 비해 낮은 지위와 임금, 육아와 가사로 인한 이중 노동, 여성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불평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여성이 남성과 다르다는 이분법적 젠더 규범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젠더의 이분법적 구분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부각시키며, 여성에게는 여성성을 남성에게는 남성성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버틀러는 여성이라는 범주를 일관되고 안정된 주체로 확립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젠더 관계를 규제하고 물화(reification)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3]. 이분법적 젠더 규범은 성적 불평등과 성에 따른 위계질서를 재생산한다. 따라서 버틀러는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규범적 젠더를 해체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섹스와 본능적인 섹슈얼리티(sexuality)가 함께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통칭하여 바라보면서 보다 넓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페미니즘을 논하고 있는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에 근거하여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젠더의 해체, 즉 젠더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녀에게 각각 따로 주어지는 사회적인 역할이 존재하여야는 안 되며, 남녀 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동등한 위치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2.2 신세계에서의 젠더 평등

페미니즘적인 측면에서 가부장제는 여성들을 억압하는 원인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이러한 제도 안에서 여성은 남성의 타자로서만 존재해왔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젠더의 평등을 위해서 가부장제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멋진 신세계』에서 보여주는 사회는 이러한 가부장적인 제도 자체가 없어진 사회이다.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결혼제도와 가족제도가 모두 철폐되어 여성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지게 되는 심적 고통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은 시험관과 같은 병에서 부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분만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다. 여성을 억압해온 여러 제도가 사라지고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즉, 남녀 간의 관계적 측면에서나 직업적인 측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남녀가 모두 공평한 위치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문화

적 제재 없이 어느 누구와도 성적 쾌락을 추구할 수 있으며, 물론 계급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남녀의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을 수행한다. 여성은 현대 사회의 이분법적 젠더 규범에서 자유로우며,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가부장적인 규율에 억압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젠더라는 굴레에 간혀 부당함을 겪지 않는 점에서 페미니즘의 이상이 표면적으로 실현된 세계인 것이다.

혁슬리는 무스타파 몬드(Mustapha Mond)라는 월드 스테이트 수장의 입을 통해 과거에는 오랜 시간 동안 혈연을 기반으로 한 어리석고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프로이트(Sigmund Freud) 이론에 빗대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프로이트는 가족생활의 무서운 위험을 명확히 폭로한 최초의 인간이었다. 세계는 아버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비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하여 새디즘에서 순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도착증세가 넘쳐났다. 세상은 형제, 자매, 삼촌, 숙모 등으로 충만했다. 그리하여 광증과 자살로 가득 찼다.” [4]

‘Our Freud had been the first to reveal the appalling dangers of family life. The world was full of fathers - was therefore full of misery; full of mothers - therefore of every kind of perversion from sadism to chastity; full of brothers, sisters, uncles, aunts - full of madness and suicide.’ [2]

월드 스테이트의 몬드는 모든 사회문제의 기저에는 가족이라는 체제가 존재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가족이라는 체제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혈연관계와 친족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야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제도 자체를 사라지게 하여 만인이 모두에게 속해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인간의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쾌락의 해소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권장하여 월드 스테이트인들이 원시적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월드 스테이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 사회의 점잖은 문화와 전통에 의해 억눌리고 억압되었던 성적 갈등에서 벗어나 본능적인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구조 안에 살게 된다.

신세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이러한 가족제도의 부재로 인해 가정이 지니고 있던 가장 고유한 기능이

라고 할 수 있는 재생산을 국가의 과학기술 시스템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에 의한 전통적인 아기 생산은 “문명은 멸균”(civilization is sterilization)[2,4]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혐오스러우며 비위생적인 야만인과 같은 일로 간주된다. 월드 스테이트에서는 그 동안 여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여성을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었으며, 여성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면에서 보면 젠더의 평등을 이룬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어머니의 자궁 대신 “부화장”(hatchery)이라는 공장에서 “보카노브스키 과정”(Bokanovsky’s Process)이라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낸다. 기계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종족번식의 고유한 권한을 대체함으로써, 인간에게 번식능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하나의 골칫거리로 치부된다. 따라서 인간의 생식기능 또한 제어되는데, 배아세포의 유전자 조작 단계에서 70 퍼센트에 해당하는 여성 배아를 생식 기능을 제거한 “프리마틴”(freemartin)으로 처리한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는 인구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남녀의 비율도 또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별할 수 있는 조직된 사회이다. 인공적인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탄생되는 인간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업무 과정으로 이 과정 안에는 생명의 탄생에 대한 신비감이나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 태아는 수태실(fertilizing room)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수정이 된다. 그리고 알파(Alpha)와 베타(Beta) 계급을 제외한 감마(Gamma), 델타(Delta), 엡실론(Epsilon)은 계급별로 부화기에서 최대 96쌍에 이르는 쌍둥이로 배양된다. 배양이 이루어지는 병의 방(bottling room)을 지나면 사회 예정설(social predestination)에서 사회적 임무에 적합한 성향을 부여받게 되고, 태아저장실을 통해 마지막에 부화가 이루어지는 방(decanting room)에서 태어나게 된다. 태아는 267일 동안에 걸쳐 2135미터에 이르는 운명의 길을 따라 호르몬 조절과 불임조절, 그리고 각종 병에 대한 면역 등의 조절을 통해서 각자의 계급에 따라 사회적 역할에 가장 적합한 외모와 지능, 성향 등을 선천적으로 부여받고 태어난다. 포드주의(fordism)에 기반을 둔 대량생산의 원칙을 생물학에 적용하여, 유전 조작을 통해 맞춤형 인간을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남성과 여성에 따른 차별은 없으며 다만 역할에 따른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여성의 순결과 정조에 대하여 중요성을 부과하는 과거의 사회와 다르게 이 사회에서는 한 여성이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며, 또한 계속해서 상대를 바꿔야만 하는 도덕적인 규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교육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 유희시간을 통해 남녀가 자유롭게 성적 쾌락을 즐기는 법을 배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아이들은 애착의 대상을 자신의 내부 안에 합체함으로써 애고를 형성한다. 애고가 바로 성 정체성이자 성격인 것이다. 프로이트 이론을 살펴보면 성 정체성 형성을 위한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경험과 극복이라고 볼 수 있다. 남자아이나 여자아이 모두 자신을 보살펴주는 어머니에게 첫 애착을 느낀다[5]. 그 후 남자아이는 아버지로부터 거세의 위협을 느끼고 거세되지 않기 위해 어머니라는 사랑의 대상을 다른 여성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겪는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음경 선망에 사로 잡혀 사랑의 대상 뿐 아니라 목적까지도 바꿔야 하는 이중거부의 과정을 겪게 된다. 처음에 어머니를 사랑하던 여자아이는 어머니에게 남근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여자아이는 얻을 수 없는 남근 대신 아버지의 아이를 갖기를 원하며 애정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고 사랑의 목적을 바꾼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성에 대한 개념은 가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프로이트의 유아 성에 대한 이론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부모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나 부모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월드 스테이트 사회에서는 프로이트의 이론조차도 무의미한 것이다. 또한 남녀의 복합적인 감정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쾌락과 유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이러한 쾌락과 유희를 즐기는 데에 있어서 젠더에 따른 차별이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을 어린 시절부터 교육에 의해 습득한다. 아이들은 성 유희시간 동안 모두 별거벗은 상태에서 정원에서 뛰어놀며 원하는 상대와 성 유희를 즐기는데, 이러한 성 유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성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성 유희에 대해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남녀가 모두 평등한 관계에서 즐기는 하나의 놀이로 간주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드 스테이트 사회는 인간이 부화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 젠더적 측면에서 차별과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젠더 평등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다.

2.3 원주민 보호구역의 젠더 불평등

월드 스테이트라는 신세계와 대조적인 특징을 지닌 사회로 등장하는 곳은 원주민 보호구역이다. 원주민 보호구역은 과학기술과 같은 고도화된 문명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지역의 향토적 특색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원주민 보호구역에는 월드 스테이트에서 의도적으로 사라지도록 만든 가족제도가 존재하는 곳이며, 가족이라는 체제가 사회 구성의 근간이 된다. 이곳의 사람들은 자급자족의 경제체제로 살아가고 있으며, 남녀로 구분되어지는 젠더의 문화적 생활양식을 따르고 있다. 즉 남성들은 밖으로 나가 사냥 등을 통해 가족들이 먹을 것을 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신에게 바치는 제사와 같은 의식을 치르기도 한다. 반면에 여성들은 마을에 모여서 함께 담요를 만들거나 도자기를 굽기도 하는 등 부락에서 필요한 물품을 협업을 통해 만들어 낸다. 이와 같이 남성은 밖으로 나가 보다 큰 생산적인 일을 담당하고 여성은 남성의 일을 도우며 집안과 마을에서 일을 하는 식의 젠더에 의한 사회적 역할의 차별이 존재한다. 또한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가 존재하는 곳으로 가족으로 맺어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금기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금기는 순결과 정조라는 개념으로 여성에게 중요하게 부과된다.

이 사회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존은 사실 월드 스테이트 출신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계속 자라온 인물이다. 신세계의 베타계급이었던 그의 어머니 린다는 여행으로 원주민 보호구역에 왔다가 사고로 인해 낙오되어 그곳에서 존을 낳고 키운다. 평소 야만인이라 생각하던 원주민 무리에서 살아가는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곳 여자들, 정말 지저워요. 철저히 미쳤고 잔인해요.” . . . “그러니까 그네들은 늘 아이들 낳고 있는 거예요 - 개나 마찬가지로요. 너무 징그러워요.” [4]

‘They’re so hateful, the women here. Mad, mad and cruel.’ . . . ‘So they’re having children all the time - like dogs. It’s too revolting.’ [2]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린다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여자들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생활이 동물과도 같은 저급한 생활로 간주한다.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술을 마시고 오직 개인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부인이 있는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다. 이를 알게 된 부인들로부터 못매를 당하는 린다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곳의 여성들은 비록 남편이 바람을 피웠지만 자신의 남편을 질책하기 보다는 남편을 유혹하여 불경한 일을 저질렀다고 여기는 상대 여자에게 더 가혹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린다는 월드 스테이트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 존에게 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자신의 그리움을 토로한다. 어머니로부터 월드 스테이트에 대한 아름답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존은 이 사회를 ‘멋진 신세계’로 여기고 동경한다. 하지만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존의 정체성은 원주민 보호구역의 생활과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그는 영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인 셰익스피어의 글을 읽으며 자랐고, 셰익스피어적인 휴머니즘 가치를 표방한다. 따라서 그는 원주민 보호구역에 여행을 온 레니나를 첫 눈에 보고 반했지만 레니나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레니나를 사랑하게 된다. 레니나를 사랑하게 된 존은 같이 여행을 온 버나드(Bernard)에게 레니나와 결혼한 사이인지를 묻게 된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사랑하는 것은 원주민 보호구역의 도덕률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월드 스테이트 사회에서 살아 온 버나드는 존이 하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은 그 여자와 결혼한 사이입니까?” 존이 물었다.
“내가 뭘 했다고?”

“결혼 말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인디언 말로 ‘영원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맙소사! 천만에!” 버나드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4]

‘Are you married to her?’ he asked.

‘Am I what?’

‘Married. You know - for ever. They say “for ever” in the Indian words; it can’t be broken.’

‘Ford, no!’ Bernard couldn’t help laughing. [2]

레니나를 사랑하지만 정신적인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육체적이 쾌락만을 즐기려고 하는 레니나를 향해 존은

“창녀! 과립치한 매춘부!”(Whore! Impudent strumpet!)[2,4]라고 소리 지른다. 여성이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해 남성과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질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사회인 것이다.

이와 같이 원주민 보호구역에서는 젠더의 사회적 역할은 남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여성에게 부과되는 억압과 차별이 존재한다. 또한 이성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녀에게 주어지는 관점이 차별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2.4 젠더 평등 속의 젠더 트러블

푸코는 생명에 대한 권력이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것은 기계로서의 육체의 형태와 종으로서의 육체의 형태이다[6]. 여기에서 기계로서의 육체는 육체를 연마하여 능력을 향상시켜서 그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권력 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종으로서의 육체란 인간의 출생률과 사망률을 포함한 수명, 건강관리, 인구의 증식에 관련된 사항을 권력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남녀 간의 성관계가 관리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늘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멋진 신세계』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회 속의 인간은 종으로서의 육체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회에 의해서 인구, 인간의 수명 등이 관리되고 있는 전형적인 감시사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세계에서 피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평화와 평등의 관계 속에는 부조화와 불평등의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월드 스테이트 사회에서는 남녀 간의 성관계와 관련된 모든 사회문화적 터부를 제거하고 상대에 제한이나 구애를 받지 않는 성적 방종을 누린다. 이들이 성적 방종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제도라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가장 안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도덕과 규율이 없어지고 개인적인 쾌락과 행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공리주의 이념을 표방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리주의 이념이 자본주의 사회에 극단적으로 적용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폐해를 보여주기 위하여 작가가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허슬리는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순결과 정조의 규율이 이러한 성적 자유로움으로 인해 해방되고 표면적으로 남녀의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반대로 다른 성별 차이를 극대화 할 수도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레니나와 데이트를 하는 헨리는 그의 동료에게 그녀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그녀의 육체가 얼마나 풍만한지에 강조를 하는데, 이것은 그녀의 여성적이고 매력적인 육체가 남성에게 끌리는 일종의 상품과도 같은 존재로 보여줌을 의미한다. 즉, 여성이 인기 있는 성적 상품과도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여성적인 육체는 이 사회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매력을 호소할 수 있는 요소로써 이러한 매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역으로 차별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유롭게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월드 스테이트에서도 성은 불만족의 근원이 되고 있다. 레니나가 데이트를 하기 전에 샤워를 하고 마사지를 하며,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중 그녀는 헨리와 그의 친구가 그녀를 고깃덩어리로 취급하는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 이는 그녀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여성은 분명히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육체는 또한 신세계의 모든 남성에게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소비재인 것이다. 이들이 속한 사회의 도덕률과 조건화에 따라서 여성의 몸은 언제든지 원하는 상대가 있으면 내놓아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자신의 몸을 내주는 일이 주저될 때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든 불쾌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소마(soma)라는 약물의 사용이 권장된다. 예를 들어서, 캔터베리(Canterbury) 대주교를 주빈으로 초대한 버나드의 파티가 야만인 존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엉망이 되자 대주교의 심경이 상하게 된다. 이에 대주교가 평소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레니나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달갑지 않은 대주교의 접근을 받아들이기 위해 레니나는 황급히 소마 1그램을 삼킨다. 대주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원하지 않는 관계를 맺는 레니나의 행동으로 보면 이 사회에서는 여성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성이 성적 주체가 아닌 성적 대상이 되는 상황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젠더의 평등을 표방하는 신세계에서 나타나는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월드 스테이트 사회에서는 남녀 사이의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유대는 금지되는데, 따라서 한 명의 데이트 상대와 너무 오래 만나는 것도 하나의 수치로 작용한다. 다른 남자를 상대하지 않고 4개월간 오직 버나드와 데이트를 가진 레니나에게 패니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결국”하고 페니의 음성은 달래는 음성으로 변했다. “헨리 말고도 한두 명의 남자와 상대하는 것은 고통스럽거나 불쾌한 일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너는 좀 더 문란해져야하단 말이야...” . . .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돼”하고 격언조로 말했다. “우리는 모두 유희의 규칙을 지켜야 해. 결국 만인은 만인의 소유물이니까.” [4]

‘And after all,’ Fanny’s tone was coaxing, ‘it’s not a though there were anything painful or disagreeable about having one or tow men besides Henry. And seeing that, your *ought* to be a little more promiscuous ...’ . . . ‘But one’s got to make the effort,’ she said sententiously, ‘one’s got to play the game. After all, everyone belongs to everyone else.’ [2]

4개월 동안 한 남자를 만났다는 것이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아는 레니나는 페니의 말에 수치심을 느끼며 얼굴을 붉힌다. ‘좀 더 문란해져야한다’는 페니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 사이의 문란함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이며, 꼭 지켜야만 하는 일종의 의무로도 작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월드 스테이트에서 결혼제도가 사라진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사회의 안정을 피하기 위해 남녀가 서로 애착을 느끼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국가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엔 전쟁이 없단 말일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대의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일세.” [4]

‘But there aren’t any wars nowadays. The greatest care is taken to prevent you from loving anyone too much.’ [2]

지나치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몬드의 말을 통해 신세계에서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느낄 수 있는 미묘하고 복잡한 남녀 사이의 감정 자체가 생성되는 것을 막고 일원론적 존재로서의 기능만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사이보그들처럼 이들은 감정 없이 서로의 쾌락만을 즐기는 탈젠더의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진정한 젠더 평등이라고 볼 수 있을까?

월드 스테이트라는 신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회의 안정이다. “만인은 만인의 공유물이다”(Everyone belongs to everyone else)[2,4]라는 선언적 명제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안정을 위해서 모든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 그리고 인간 간의 낭만적인 정서를 철저하게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몬드는 “사회적 안정 없이는 어떠한 문명도 없다. 개인의 안정 없이는 어떠한 사회적 안정도 없다”(No civilization without social stability. No social stability without individual stability}[2,4]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안정성이 문명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조건이고, 이러한 사회적 안정성이 인간 개인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안정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모든 사람들을 사회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도록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강한 감정을 느끼면서, 어찌 그들이 안정될 수 있는가?”(And feeling strongly, how could they be stable?)[2,4]라고 질문을 던지며, 사회 문제 기저에 존재하는 “어머니, 일부일처주의, 낭만”(Mother, monogamy, romance)[2,4]을 사회에서 말살하게 되었음을 정당화한다. 몬드는 사회의 불안정적인 요소들로 인해 결국 “9년 전쟁”(Nine Years’ War)[2,4]을 초래하였고, 경제 붕괴와 사회 혼란으로 인해 사회를 통제하여 안정을 시키는 선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몬드의 말을 통해 결국 월드 스테이트는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남녀 간의 깊이 있는 감정적 교류를 금하고, 가족 간의 느낄 수 있는 끈끈한 정을 제거해버렸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이 감정을 가지면 사회는 동요하는 법이요”(When individual feels, the community reels)[2,4]라는 레니나의 말을 통해 월드 스테이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사회에서 주입한 교육에 의해 남녀 간에도 개인적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다툼, 미움 등의 감정이 없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 기쁨, 행복이라는 감정도 없는 것이다. 레니나의 이러한 말에 버나드는 “사회가 좀 동요하면 어떻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Why shouldn’t it reel a bit?)[2,4]라고 반문한다. 또한 버나드는 레니나에게 “어머니라는 것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엇인가를 상실했을 것이라고 나는 자주 생각해봅니다. 레니나, 당신도 어머니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언가 상실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I often think one may have missed something in not

having had a mother. And perhaps you've missed something in not *being* a mother, Lenina.)[2,4]라고 말한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는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권리가 국가에 의해서 박탈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버나드는 무엇인가를 상실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출산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진정한 여성 해방이라 볼 수는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출산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젠더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성 문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성적 쾌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순결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신세계에 대해서 존은 그래도 순결을 지킬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몬드에게 묻는다. 이에 대해 몬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순결은 정열을 의미하며 신경쇠약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정열과 신경쇠약은 불안정을 의미해. 그런데 불안정은 문명의 종말을 의미하지. 타락한 쾌락이 풍부하지 않고는 영속적인 문명은 기대할 수 없네.” [4]

‘But chastity means passion, chastity means neurasthenia. And passion and neurasthenia mean instability. And instability means the end of civilization. You can't have a lasting civilization without plenty of pleasant vices.’ [2]

결국 순결이라는 개념의 상실도 젠더적 측면의 평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고 젠더 평등이 이루어진 듯 보이는 사회이지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젠더의 불평등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첨단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월드 스테이트라는 신세계는 여성을 억압하던 많은 사회적 규제와 제약을 철폐하고 표면적으로는 젠더 평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심층적으로 살펴본 결과 젠더 불평등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인류학자인 더글라스(Mary Douglas)는 사회적 차원을 동시에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몸을 고려하는 자연적인 방식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7]. 즉 인간이 태어나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교육의 흔적이 반영되며, 이는 사회적인 맥

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평등과 균등을 표방하고 있는 월드 스테이트 사회가 진정으로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젠더의 경계가 사라진 미래의 멋진 신세계에서 젠더의 차별을 제거하고 진정한 젠더의 평등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과학의 발달은 분명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인간이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이 어느 특정 집단의 의도에 따라 이용된다면 과연 그러한 사회가 인간이 꿈꾸는 평등하고 행복한 미래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까? 올더스 헉슬리는 그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 과학 발달이 특정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이용된다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권력과 지식의 문화적 체계의 구축에 관한 최근의 페미니즘적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작동하는 지배와 통제의 형식들을 문제제기한다 [8]. 사회적으로 구축된 지식의 제도화된 영역들로서의 과학, 기술, 의학 등이 젠더, 인종, 계급의 문제에 개입이 되어 지배와 억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평등과 균등을 외치는 소설 속의 미래 사회인 월드 스테이트는 표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고통이 없이 행복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사회의 안정이라는 국가적 의도에 따라 불평등한 면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측면을 젠더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헉슬리는 페미니즘적 측면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제일 큰 원인이라 여겨지는 가부장적 제도를 완전히 철폐한 미래 사회인 월드 스테이트 사회를 통해 젠더의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이곳의 여성들은 결혼 제도와 가족제도가 없어진 사회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아이를 출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만의 고통이나 육아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며, 여성의 순결과 정조를 강조하던 과거와 다르게 여러 남자와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등 여러 측면에서 남성과 공평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인 삶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과학기술과는 거리가 먼 원주민 보호구역을 설정하였

다. 이곳은 모든 사회의 구성이 가족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남성은 외부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등 사회적으로 젠더의 역할에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다. 또한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로 인해 여성에게 순결과 정조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부과되는 곳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월드 스테이트 사회는 젠더의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이고, 원주민 보호구역은 젠더의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인 것이다.

하지만 남녀가 지나치게 한 사람과의 정신적인 교류를 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등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개인의 삶에 관여하는 월드 스테이트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즉 남녀 간의 깊은 감정적 교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의 특권 등을 박탈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여성의 몸이 성적 상품으로 여겨지는 풍조가 만연하며, 보다 여성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몸이 남성에게 끌리는 것으로 묘사되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육체는 남성에게 매력을 호소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원하는 상대가 있으면 내놓아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여성의 몸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품으로 전략될 수도 있는 모습을 통해 평등과 균등을 외치는 신세계의 모순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이 발달된 이상적인 미래 사회가 국가의 지배와 통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페미니즘적 차원에서 젠더 평등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으며, 진정한 젠더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 관점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2002.

- [8] Anne Marie Balsamo, Translated by Gyeongrye Kim, *Technologies of the Gendered Body*, Arche Publishing, 2012.

류 다 영(Da-Young Ryu)

[종신회원]



- 200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7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영미소설, 영미드라마, 영어교육, 문학과 치유

References

- [1] Jaegyong Lee, *Nation and Gender*, Hanwool Academy, 2010.
- [2] Aldous Huxley, *Brave New World*, Vintage, 2009.
- [3] Judith Butler, Translated by Hyeonjun Cho, *Gender Trouble*, Munhakdongne, 2010.
- [4] Aldous Huxley, Translated by Deokheong Lee, *Brave New World*, Moonye Publishing, 1998.
- [5] Sigmund Freud, Translated by Jeongil Kim, *Sigmund Freud Gesammelte Werke*, Openbooks, 2003.
- [6] Michel Paul Foucault, Translated by Gyuheon Lee, *Histoire de la Sexualite 1*, Nanam Publishing, 2004.
- [7] Mary Douglas, *Natural Symbols*, Psychology Press,